장흥군, '표고버섯, 한우' 산업에 과학적 통계 활용

특산물 실태조사 보고서…효율적 정책수립 기여

장흥군은 지역 대표 특산물인 표고버섯과 한우에 대한 '특산물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산물의 분포, 경영형태 등 세분화된 통계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특산물 정책과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장흥군은 지난해 7월 호남지방통계청과 함께 '제1회 장흥군 특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표고버섯 재배 임가와 한우 사육 농가에 대한 기본사항부터 생산자 조직, 판매, 유통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됐다.

조사대상은 판매를 목적으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가구 중 492가구, 한우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가우데 1,741가구가 선정됐다.

이번에 생산된 통계는 조사원이 해당 농가를 직접 방문해 면접을 통해 실시됐다.

장흥군은 농업정책 추진 시 별도의 통계 자료 확보를 위한 인력 및 예산 등의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통계기반의 효율적 정책수립에 기여 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흥군 특산물 실태조사'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 홈페이지 및 호남지방통계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여수시, 컬러빌리지 마무리…색채와 빛의 도시 완성

8억 투입 고소천사벽화 · 자산마을에 색채 입혀…이국적 분위기 SNS 입소문

여수시가 원도심 일대에서 추진된 컬러빌리지 사업을 지난해 말 마무리하며 색채와 빛의 도시를 완성했다.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8억 원이 투입된 컬러빌리지 사업은 '낮에는 색채, 밤에는 빛'을 주제로 지난해 초 착공에 들어갔다.

컬러빌리지는 색채를 이용한 경관개선사업으로 사업완료에 따라 고소천사벽화마을과 자산마을은 알록달록 색깔 옷을 입었다.

특히 자산마을 주택 70여 동은 동백꽃 색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

마을 옆을 지나는 해상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면 동백꽃 한 송이가 피어있는 모습으로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고 있다.

고소천사벽화마을 주택 130여 동도 지붕은 동백꽃 색, 벽면은 파스텔 톤 색상으로 변신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내고 있다.

마을 내 옹벽과 비탈면은 패턴벽화와 야간조명이 설치돼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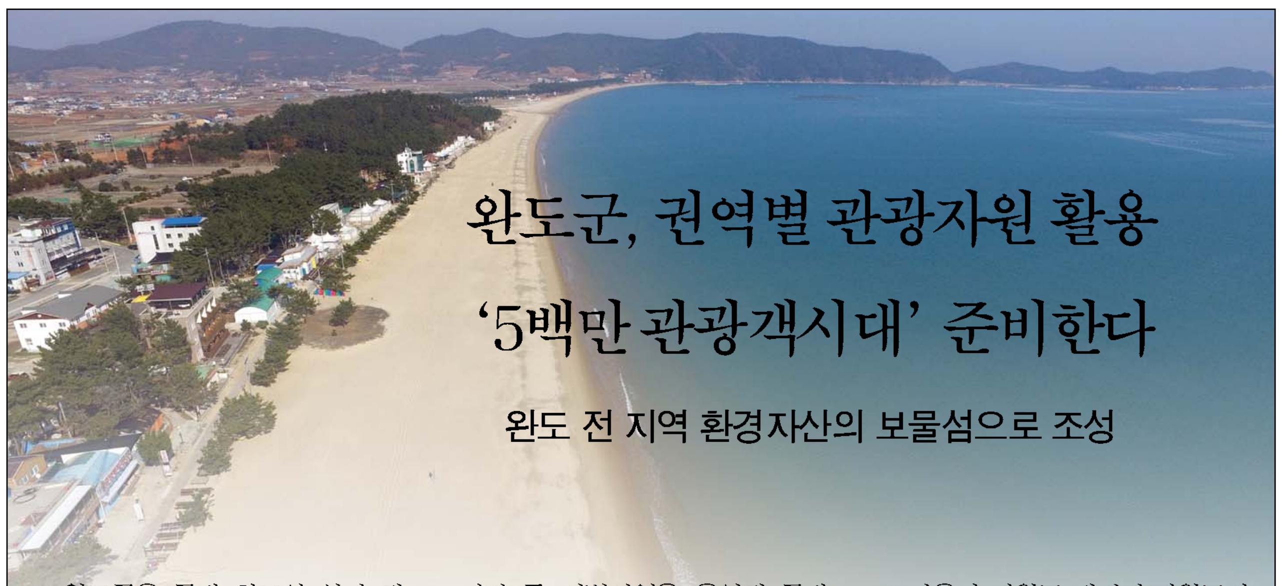
컬러빌리지 사업은 추진 전반에 마을 주민이 적극 참여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사업대상이 사유시설인 만큼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사업 시행과 준공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관사업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컬러빌리지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만들어낸 값진 성과물"이라며 "돌산공원, 해상케이블카, 남산공원, 돌산대교 등에서 빛과 색채로 물들어가는 여수의 낭만을 만끽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완도군, 권역별 관광자원 활용 '5백만 관광객시대' 준비한다

완도 전 지역 환경자산의 보물섬으로 조성

완도군은 국내 최고의 섬과 해양자원을 활용해 권역별로 관광자원을 개발해 5백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슬로시티 재인증 범위를 확대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등 완도 전 지역을 하나로 묶어 우리 모두가 가꾸고 보전해야 할 '환경자산의 보물섬'으로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매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청산도는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감성적인 마케팅을 개발하고, 슬로걷기 축제를 생산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가고싶은 섬으로 선정된 소안도, 생일도, 여서도는 휴식과 힐링의 명품섬으로 개발한다.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은 개장기간 중 시범사업을 운영해 국내 최초 블루플래그 인증에 차질 없도록 준비 하고, 이를 해양헬스케어 산업의 사업화 추진 로드맵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신지 해수욕장에 워터파크형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금일 해수욕장에는 향후 4년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캠핑장과 야자수 공원을 조성한다.

보길도에 어부사시사 명상길 탐방로를 복원하고, 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부용동 원림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가 담긴 가리포진 지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은 대통령 공약인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해 관광콘텐츠를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왕묘 재건과 관왕묘비의 전남도 유형문화재 지정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에 대비한 중국 관광객 유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해진 시대와 연관성이 입증된 완도 법화사지는 2차 정밀 발굴을 통해 장보고 역사·관광벨트를 완성하고, 장보고 글로벌 마인드 계승을 위한 창작 판소리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양헬스케어 선도지자체로 선정된 우리 군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해양헬스케어 산업과 대통령 공약인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5백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진도토요민속여행,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선정

1993년부터 시작 올해로 25년째 매주 토요일 공연

진도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이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지역 문화관광 지원과 연계한 2018년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진도토요민속여행은 지난 1993년부터 시작, 올해로 25년째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되어 오고 있으며, 현재 774회 공연을 개최했다.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이 강강술래, 남도들노래, 진도 씻김굿, 진도 다시래기 등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4종과 진도북놀이, 진도만가, 남도잡가, 진도소포걸궃농악, 조도닻배노래 등 전남도지정 무형문화재 5종 등 무형문화재를 무대극화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강강술래, 아리랑, 농악 부문도 대한민국 유일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에서 보존·전승을 통해 국내외 문화교류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진도군 관광문화과 관계자는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특구로서의 위상과 군민소득 1조원 달성실현과 관광객 500만명 유치에 내실있는 진도토요민속여행 공연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무안군, 지적재조사업무 4년 연속 국토부 표창

무안군은 3일 "지적재조사업무 평가에서 4년연속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2014년, 2015년에는 지적재조사사업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담당공무원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정책기여도, 주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적재조사업무 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표창을 수여한다.

2017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신명주 주무관은 지적재조사를 통한 토지의 경계분쟁 및 불부합 토지를 해소하기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토지소유자와의 대화를 통한 열린 행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하여 '경계협의 이동민원실'을 운영 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를 위하여 완료사업지구를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결합한 주민편의용 종합도면을 제작·배부하는 등 업무를 추진하였다.

무안=이기성 기자